

한국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라오스 녹색성장 협력의 문 연다

- 「한-라오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 회의」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8월 8일 오전 코트라에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양국 간 산업·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 이날 양자 회의에는 산업부의 김도현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과 코트라,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자 8명과 라오스 측 천연자원환경부, 산업통상부, 에너지광산부, 농림부, 공공사업교통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하였다.

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전력발전 장려 등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우리 측은 전략적 협력 분야의 발굴과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등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.

라 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, 라오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산업부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7개국과 국장급 양자 회의 개최 이후, 7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, 올 11월 부산에서는 「글로벌 넷 제로 커넥션」 행사를 열어 한국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	책임자	팀 장	김도현 (044-203-4068)
	투자정책과			담당자
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				

참고

「한-라오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자 회의」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라오스 정부 관계자의 KSP 방한 연수(탄소배출권 거래제 마스터플랜 수립)와 연계해 산업·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논의

□ 회의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8.8(화) 10:30~11:30 / 코트라 본사 영상회의실
- (참석자) (한) 산업부 김도현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및 전담 기관(코트라, 한국에너지공단) 관계자 등 8명
(라) 천연자원환경부, 산업통상부, 에너지광산부, 농림부, 공공사업교통부 등 관계자 9명
- (진행방식) 순차 통역(한-라오어)

□ 주요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0:30-10:33 (3분)	• 모두 발언	김도현 팀장
10:33-10:53 (20분)	• 한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그램 • '23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예시 •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·탄소중립지원센터 소개	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코트라
10:53-11:23 (30분)	• 토의(산업·에너지 양자 협력 추진/역량 강화)	참가자 전원
11:23-11:26 (3분)	• 마무리 발언	김도현 팀장
11:26-11:30 (4분)	• 사진 촬영	참석자 전원

* 비공개